

AUDIOGUY

DIETRICH BUXTEHUDE

MEMBRA JESU NOSTRI

BACHSOLISTEN SEOUL

북스테후데 · 고난 당하신 주님의 지체 · 바흐솔리스트서울

BUXTEHUDE · MEMBRA JESU NOSTRI
BACHSOLISTEN SEOUL

TRACK LIST

BACHSOLISTEN SEOUL

soprano 송승연 (03 · 14 · 20 · 32)
soprano 이수희 (15 · 22 · 33)
countertenor 정민호 (09 · 26 · 39)
tenor 홍민섭 (08 · 27)
bariton 박승혁 (04 · 28)

I . AD PEDES 주님의 발

01	Sonata
02	Concerto (SSATB) Ecce super montes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보라
03	Aria (S) Clavos pedum 못 박힌 발이여
04	Aria (B) Dulcis Jesu 귀하신 예수여
05	Concerto (da capo: Ecce super montes)

II . AD GENUS 주님의 무릎

06	Sonata
07	Concerto (SSATB) Ad ubera portabimini 그의 품에 안겨
08	Aria (T) Salve Jesu, rex sanctorum 거룩한 왕 예수여
09	Aria (A) Quid sum tibi responsurus 무어라 당신께 대답하리오
10	Aria (SSB) Ut te quaeram mente pura 깨끗한 마음으로
11	Concerto (da capo: Ad ubera portabimini)

III . AD MANUS 주님의 손

12	Sonata
13	Concerto (SSATB) Quid sunt plagae istae 처참한 손의 상처여
14	Aria (S) Salve Jesu, pastor bone 선한 목자 예수여
15	Aria (S) Manus sanctae 거룩한 손을
16	Aria (ATB) In cruore tuo 당신의 거룩한 피에
17	Concerto (da capo: Quid sunt plagae istae)

IV . AD LATUS 주님의 옆구리

18	Sonata
19	Concerto (SSATB) Surge, amica mea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20	Aria (S) Salve latus salvatoris 구원자의 옆구리여
21	Aria (ATB) Ecce tibi appropinquo 당신께 다가갑니다
22	Aria (S) Hora mortis meus 우리가 죽을 때에
23	Concerto (da capo: Surge amica mea)

V . AD PECTUS 주님의 가슴

24	Sonata
25	Concerto (ATB) Sicut modo geniti 갓 태어난 아기처럼
26	Aria (A) Salve, salus mea, Deus 나의 사랑하는 예수여
27	Aria (T) Pectus mihi confer mundum 깨끗한 가슴을 주소서
28	Aria (B) Ave, verum templum Dei 진정한 성전이여
29	Concerto a 3 voci (da capo: Sicut modo geniti)

VI . AD COR 주님의 심장

30	Sonata
31	Concerto a 3 voci (SSB) Vulnerasti cor meum 내 심장이 상처 입었네
32	Aria (S) Summi regis cor 가장 높으신 이의 심장이여
33	Aria (S) Per medullam cordis mei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34	Aria (B) Viva cordis voce clamo 당신을 부르나이다
35	Concerto a 3 voci (da capo: Vulnerasti cor meum)

VII . AD FACIEM 주님의 얼굴

36	Sonata
37	Concerto (SSATB) Illustra faciem tuam 당신의 얼굴을 보이소서
38	Aria (ATB) Salve, caput cruentatum 피 흘리는 머리여
39	Aria (A) Dum me mori est necesse 내가 죽을 때에
40	Aria (SSATB) Cum me jubes emigrare 떠나라 명하실 때에
41	Concerto (SSATB) Amen

칸타타는 총 6개의 개별 악장으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개별 칸타타는 예수의 발, 예수의 무릎, 예수의 손, 예수의 옆구리, 예수의 가슴, 예수의 심장, 예수의 얼굴이라는 일련의 소재목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제1악장은 기악 소나타, 또는 실포니아로 표기된 기악악장이며, 제2악장은 콘체르토, 또는 합창악장, 그리고 제3악장, 제4악장, 그리고 제5악장은 아리아악장이고, 마지막 6악장은 콘체르토(합창) 악장의 반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각 칸타타 안에서 발견되는 형식상의 유사성은 이들 7개의 작품을 외형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한다.

제1악장으로 등장하는 기악악장은 바로크 후기, 즉 18세기 초반 발견되는 칸타타에서와는 달리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악기편성 또한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기악악장 이후 등장하는 콘체르토(합창) 악장의 가사는 성경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컨대, 첫 번째 칸타타는 나흐서 제1장 15절, 두 번째 칸타타는 이사야 제66장 12절, 그리고 세 번째 칸타타는 스가랴서 제13장 6절이 차용된다. 개별 칸타타에 등장하는 아리아의 경우, 그 가사를 1250년 루뱅(Louvain)의 아르눌프(Arnulf)에 의해 쓰여진 유절형식의 시, “어서 오소서, 세상의 구원자여”(Salve mundi Salutare)에서 빌려오고 있다.

이 아리아들은 짧은 리토르넬로로 마무리된다. 이 리토르넬로들은 18세기 초반, 예컨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리아에서 발견되는 리토르넬로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아리아를 마무리 짓는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칸

타타에 등장하는 3개의 아리아는 모두 유절형식의 변주곡으로 작곡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북스테후데가 다카포 아리아와 같은 전형적인 바로크 시대 아리아 형식을 이 작품에서 사용하고 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품의 형식상 특징들은 17세기 말 북부 독일 칸타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스테후데는 이 전형적인 모형의 칸타타 안에서 가사의 의미와 최대한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칸타타, ‘주님의 손’의 제2악장에 등장하는 “당신의 손 가운데 것처럼 참혹한 상처가 있나요?”라는 가사, 그리고 이어지는 제3악장에 등장하는 “나루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라는 사실적인 가사가 강렬하고 강력한 불협화음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작곡가가 가사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네 번째 칸타타, ‘주님의 옆구리’는 6/4박자의 춤리듬으로 시작된다. 6/4박자가 연출하는 춤 리듬은 이 칸타타의 제2악장의 가사,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일어나라 절벽의 틈새와 은밀한 동굴과 나의 아름다운 이, 비둘기여 함께 가자”가 전달하는 역동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의 지체>에서 음악의 정점을 이루는 부분은 여섯 번째 칸타타, ‘주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악장들보다 긴 제1악장 기악소나타에는 반원(C)과 3/2박자가 9마디, 6마디, 3마디, 12마디, 9마디씩 번갈아가면서 등장한다. 이 기악소나타 안에서 반원으로 기보된 처음 9마디도 3마디의 아다지오, 그리고 6마디의 알레그로로 다시 나누어지며, 마지막에 등장하는 9마디(반원으로 기보) 역시 5마디의 알레그로, 그리고 4마디의

아다지오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분할은 같은 박자기호 안에서 드러나는 빠르기의 대비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의 지체>의 마지막 칸타타의 음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칸타타의 제5악장은 모든 성부가 참여하는 합창악장이다. 제5악장은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는 구원으로까지 확장된다. 북스테후데는 이 5악장에서 대위법적인 작곡방식을 완전히 배제하였고, 호모포닉한 성부진행을 통해 “십자가”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 6/4박자가 전달하는 춤 리듬은 십자가의 치유를 통해 구원에 도달한 기독교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듯 여겨진다.

이 작품의 형식은 충분히 유연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주어진 틀 안에서 북스테후데는 소박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예수의 수난사와 그것의 신학적 함의를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이 후기 바로크의 그것과 다르고, 또한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군더더기 없어 보이는 북스테후데의 음악이 우리의 감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가영 (성신여대 작곡과 교수, 음악학자)

북스테후데 · 고난 당하신 주님의 지체

<고난 당하신 주님의 지체>, BuxWV 75는 북부 독일의 작은 도시, 뉘베크(Lübeck)에서 활동하던 디트리히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가 작곡한 음악이다. 북스테후데는 17세기 독일 바로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오르간 연주자 겸 작곡가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 등의 바로크 성악음악장르와 오르간을 위한 작품을 포함한 기악음악장르를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고난 당하신 주님의 지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며, 라틴어 가사로 이루어진 칸타타이다.

이 작품은 예수의 고난, 또는 수난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칸타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cantata is subtitled as Jesus' feet, knees, hands, side, breast, heart, and head, and, remarkably enough, they all take similar structures. For instance, the 1st movement is an instrumental introduction marked as instrumental sonata or sinfonia; the 2nd movement is a concerto or the choir; the 3rd, 4th, and 5th movements are aria; and the 6th movement is a reprise of the concerto (choir). The similar structure that runs through each cantata serves as the ring that links the seven parts together.

The instrumental introduction in the 1st movement is unlike the cantata of the late Baroque in the early 18th century in that it's relatively shorter, and uses a simple combination of instruments. Also, the concerto (choir) movement that follows the instrumental movement takes its lyrics from the biblical text. For example, part I takes from Nahum 1:15, the part II from Isaiah 66:12, and part III from Zechariah 13:6. As for aria in each cantata, the words have been taken from the poem "Salve mundi Salutare" by Arnulf of Leuven (1250).

These arias end with brief ritornello. While these ritornellos differ from those found in the arias, for example, by Johann Sebastian Bach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y are marked for their structural importance as the conclusions of the arias. Also,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ll three arias in this Cantata work have been composed as strophic variations. It implies that Buxtehude refuses to adopt the typical aria of the Baroque period in this work.

The traits of this type of music form can be

considered as the typical cantata in northern Germany of the late 17th century. And Buxtehude seems to fully scrutinize the meaning of the verses in this traditional model cantata. The verse in Part III (Jesus' hands), 2nd movement, "Quid sunt plagae istae in medio manuum tuarum?" (What are those wounds in the midst of Your hands?), followed by the graphic verse, "qui per lignum es distractus" (tormented on the cross) illustrated through the powerful and strong discord is a good example of how the composer develops the significance of the lyrical phrases.

Part IV (Jesus' side) begins with the dance rhythm in 6/4 meter. The dance rhythm enlivened by 6/4 meter makes a wonderful harmony with the dynamism transmitted from the verse in the 2nd movement, "Surge, amica mea, speciosa mea, et veni, columba mea in foraminibus petrae, in caverna maceriae" (Arise, my love, my beautiful one, and come, my dove in the clefts of the rock, in the hollow of the cliff). The culmination of the music in <Membra Jesu Nostri> is part VI (Jesus' heart). Longer than the previous movements, the instrumental sonata of the 1st movement features common time and 3/2 meter taking turns for every 9 measures, 6 measures, 3 measures, 12 measures, and 9 measures. The first 9 measures marked in common time in the instrumental sonata is again divided into 3 measures of adagio and 6 measures of allegro, and the last 9 measures (marked as cut common time) are also divided into 5 measures of allegro, and 4 measures of adagio. Such divisions efficiently demonstrate the

comparison of tempos expressed within the same time signature phrase.

The music in the final part of <Membra Jesu Nostri> also demands our attention. The 5th movement consists of the choir sung by all parts. The words in this movement stress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cross. The message of the cross emphasized in these verses extends beyond the pain and suffering of Jesus to reach the salvation. In this movement, Buxtehude completely eliminates the contrapuntal composition method and uses homophonic chord progression in the repetition of the word, "cross." Moreover, the dance rhythm brought out by 6/4 meter feels as though it expresses the joy of the Christians having attained salvation through the healing of the cross.

The form of this musical work is by no means flexible, but within the given frame, Buxtehude modestly and plainly delivers the story of Jesus' suffering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The form of his present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late Baroque era or that of our times. Nevertheless, the reason that it convinces us is perhaps because (ironically) Buxtehude's music, which appears artless to our ears, in fact speaks directly and forthright to our emotions.

BUXTEHUDE · MEMBRA JESU NOSTRI

<Membra Jesu Nostri>, BuxWV 75 is the music composed by Dietrich Buxtehude (1637-1707) who pursued his musical career in a small village in norther Germany, Lübeck. Buxtehu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sts and composers in Germany of the 17th century. He is known to have composed Baroque vocal music such as cantatas and oratorios, along with the instrumental music including the organ pieces. <Membra Jesu Nostri> featured on this album is one of his masterpieces, consisting of a cycle of cantatas with the Latin lyrics.

This work features the story of the suffering or the passion of Jesus, and is made up of seven cantatas, with each cantata divided into six sections. Each

LYRICS



lyrics · membra Jesu nostri

Dietrich Buxtehude · Membra Jesu nostri patientis sanctissima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신 우리 예수의 가장 거룩한 몸

I . AD PEDES 주님의 발

- 01 Sonata
- 02 Concerto (SSATB)

Ecce super montes
pedes evangelizantis
et annunciantis pacem
Salve mundi salutare,
salve Jesu care!
Cruci tuae me aptare
vellem vere, tu scis quare,
da mihi tui copiam

나훔서 1장15절
보라,
복된 소식을 가져와
산 위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발을!
어서 오소서, 세상의 구원자여,
어서 오소서, 사랑하는 예수여!
저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려오,
주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나이다.
제게 주님의 강함을 주소서.
- 03 Aria (S1)

Clavos pedum, plagas duras,
et tam graves impressuras
circumplector cum affectu,
tuo pavens in aspectu,
tuorum memor vulnerum

깊은 상처를 남긴 못들,
주님의 발에 세계 박혀있네.
괴로움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 04 Aria (B)

Dulcis Jesu, pie deus,
Ad te clamo licet reus,
praebe mihi te benignum,
ne repellas me indignum
de tuis sanctis pedibus

아름다우신 예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비록 죄가 많으나 주님을 부르나이다.
자비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가차 없이 돌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발길을...
- 05 Concerto · da capo: Ecce super montes, Salve mundi Salutare

II . AD GENUS 주님의 무릎

- 06 Sonata
- 07 Concerto (SSATB) 이사야 66장12절
Ad ubera portabimini, 너희는 그 품에 안겨
et super genua blandientur vobis 그 무릎 위에서 사랑받으리라.
- 08 Aria (T) 어서 오소서, 성스러운 왕이신 예수여,
Salve Jesu, rex sanctorum,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여,
spes votiva peccatorum, 죄 있는 인간으로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crucis ligno tanquam reus, 진정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지여,
pendens homoverus deus, 주님 앞에 떨리는 무릎을 꿇나이다.
caducis nutans genibus
- 09 Aria (A) 행함에도 무디고, 약한 마음을 지닌 제가
Quid sum tibi responsurus, 주님께 무어라 대답하리까?
actu vilis corde durus? 어찌 보답할까요?
Quid rependam amatori, 나를 위해 죽음을 택하여
qui elegit pro me mori, 내가 두 번 죽지 않게 하신 사랑을?
ne dupla morte morerer?
- 10 Aria (SS[B])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Ut te quaeram mente pura, 제게 가장 큰 염려 되게 하소서.
sit haec mea prima cura, 그런 염려가 제게 수고스럽거나 짐 되지 아니합니다.
non est labor et gravabor, 오히려 치료받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sed sanabor et mundabor, 주님을 부둥켜안았을 때에...
cum te complexus fuero
- 11 Concerto · da capo: Ad ubera portabimini

lyrics · membra Jesu nostri

III . AD MANUS 주님의 손

- 12 Sonata
- 13 Concerto (SSATB) 스가랴서 13장6절
Quid sunt plagae istae 어찌럼 그처럼 참혹한 상처가
in medio manuum tuarum? 당신의 손바닥 가운데 있나요?
- 14 Aria (S) 선하신 목자, 예수여 오소서.
Salve Jesu, pastor bone, 사투에 초죽음 되어
fatigatus in agone, 나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qui per lignum es distractus 나무 십자가에 못질 당한
et ad lignum es compactus 펼치신 그 거룩하신 손이여.
expansis sanctis manibus
- 15 Aria (S) 주님의 거룩한 손을 부여잡고
Manus sanctae, vos amplector, 탄식하며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나이다.
et gemendo condelector, 이 처참한 상처와,
grates ago plagis tantis, 잔혹한 못으로 인한 거룩하신 피에 감사드리며
clavis duris guttis sanctis 눈물 속에서 입 맞춥니다.
dans lacrymas cum oculis
- 16 Aria (ATB)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In cruore tuo lotum 온 마음으로 만나이다.
me commendo tibi totum,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tua sanctae manus istae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me defendant, Jesu Christe, 저의 마지막 고통에서...
extremis in periculis
- 17 Concerto · da capo: Quid sunt plagae istae

IV . AD LATUS 주님의 옆구리

- 18 Sonata
- 19 Concerto (SSATB) 솔로몬애가 2장 13-14절
Surge, amica mea,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일어나라
speciosa mea, et veni, 나의 아름다운 이여 가자
columba mea in foraminibus petrae, 나의 비둘기여 절벽의 틈새로
in caverna maceriae 은밀한 동굴로 가자.
- 20 Aria (S) 구원자의 옆구리에 인사드리나이다.
Salve latus salvatoris, 그 곳에는 달콤한 꿀이 숨겨져 있고
in quo latet mel dulcoris, 사랑의 힘으로 열려
in quo patet vis amoris, 주님의 피가 터져 나와
ex quo scatet fons cruoris, 불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이다.
qui corda lavat sordida
- 21 Aria (ATB) 보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니
Ecce tibi appropinquo, 예수여, 비록 저에게 죄가 많아도 용서하시어,
parce, Jesu, si delinquo, 비록 제 부끄러운 눈길로나마
verecunda quidem fronte, 주님께 다가가서
ad te tamen veni sponte 그 상처를 살펴보겠나이다.
scrutari tua vulnera
- 22 Aria (S) 오, 주님, 저의 죽음의 순간.
Hora mortis meus flatus 제 영혼이 주님의 옆구리에 들어가게 하소서.
intret Jesu, tuum latus,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 서둘러가서
hinc expirans in te vadat, 사나운 사자가 달려들지 못하게 하고
ne hunc leo trux invadat, (제 영혼은) 주님 곁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sed apud te permaneat.
- 23 Concerto · da capo: Surge amica mea

lyrics · membra Jesu nostri

V . AD PECTUS 주님의 가슴

- 24 Sonata
- 25 Concerto a 3 voci (ATB) 베드로전서 2장 2-3절
Sicut modo geniti infantes rationabiles, 갓 태어난 아기처럼
et sine dolo concupiscite,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ut in eo crescatis in salutem.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리라. .
Si tamen gustatis, quoniam dulcis est Dominus. 그대가 주님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니!
- 26 Aria (A) 어서 오소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Salve, salus mea, deus, 인자하신 예수, 나의 사랑이여,
Jesu dulcis, amor meus, 어서 오소서, 영광스러운 가슴이여,
salve, pectus reverendum, 떨리는 손으로 보듬습니다.
cum tremore contingendum, 사랑이 거한 그 가슴을...
amoris domicilium
- 27 Aria (T) 제게 깨끗한 가슴(마음)을 주소서.
Pectus mihi confer mundum, 뜨겁고, 신실하며, 연민이 가득하며
ardens, pium, gemebundum, 제 의지를 포기하게 하소서.
voluntatem abnegatam, 항상 주님께 속하게 하소서.
tibi semper conformatam, 풍성한 천하심 속에서...
juncta virtutum copia
- 28 Aria (B) 어서 오소서, 진정한 신이 거하는 분이시여,
Ave, verum templum dei, 바라건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precor miserere mei, 주님, 모든 선함의 방주이시여,
tu totius arca boni, 택함 받은 이들 곁에 서게 하소서.
fac electis me apponi, 고귀한 웅기이신 만물의 하나님이며.
vas dives deus omnium
- 29 Concerto a 3 voci · da capo: Sicut modo geniti

VI . AD COR 주님의 심장

- 30 Sonata
- 31 Concerto a 3 voci
Vulnerasti cor meum,
soror mea, sponsa.
솔로몬애가 4장9절 (SSB)
내 심장에 상처를 입혔구나.
나의 누이여, 신부여.
- 32 Aria (S)
Summi regis cor, aveto,
te saluto corde lacto,
te complecti me delectat
et hoc meum cor affectat,
ut ad te loquar, animes
지극히 높으신 왕의 심장을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인사드리나이다.
당신을 부동켜안으니 제게 행복됩니다.
주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당신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 33 Aria (S)
Per medullam cordis mei,
peccatoris atque rei,
tuus amor transferatur,
quo cor tuum rapiatur
languens amoris vulnere
제 마음 가장 중심에
죄와 죄 때문에 고통 받는 제게
주님의 사랑을 심으소서.
주님의 심장이 찢어
사랑의 상처로 죽으심으로써...
- 34 Aria (B)
Viva cordis voce clamo,
dulce cor, te namque amo,
ad cor meum inclinare,
ut se possit applicare
devoto tibi pectore
살아있는 마음의 소리로 부르나이다
사랑스런 심장이여, 주님을 사랑하니
제 마음에 다가오소서.
제가 기꺼이
주님께 기댈 수 있도록.
- 35 Concerto a 3 voci (SSB)

lyrics · membra Jesu nostri

VII . AD FACIEM 주님의 얼굴

- 36 Sonata
- 37 Concerto
Illustra faciem tuam super servum tuum,
salvum me fac in misericordia tua
시편31편 16절 (SSATB))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종들에게 보이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구해주소서.
- 38 ARIA (ATB)
Salve, caput cruentatum,
totum spinis coronatum,
conquassatum, vulneratum,
arundine verberatum
facie sputis illita.
어서오소서, 피가 낭자한 머리,
온통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시고,
깨지고 상처투성이이며
갈대로 맞고
침 뱀을 당한 얼굴이여.
- 39 Aria (A)
Dum me mori est necesse,
noli mihi tunc desse,
in tremenda mortis hora
veni, Jesu, absque mora,
tueri me et libera
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
제게서 떠나지 마시고,
두려운 죽음의 시간에
예수여, 지체 말고 오셔서
저를 지키시고 자유하게 하소서.
- 40 Aria (SSATB)
Cum me jubes emigrare,
Jesu care, tunc appare,
o amator amplectende,
temet ipsum tunc ostende
in cruce salutifera.
내게 떠나라 명하실 때
사랑하는 예수여, 모습을 보여주소서.
부동켜안고 싶은 사랑이여,
그 때에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소서.
치료를 가져다주는 십자가 위에서...
- 41 Concerto (SSATB)
Amen
아멘





2009년 일본 야마나시 고음악 콩쿠르의 앙상블 부문에서 입상하며 일본 쓰루 고음악 페스티벌에 초청연주 등 새롭게 발돋움한 바흐솔리스트서울은 2010년 같은 이름 아래 구성된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2011년 바흐 콜레기움 재팬 (Bach Collegium Japan)의 지휘자인 마사아키 스즈키 (Masaaki Suzuki)와 함께 LG아트센터와의 공동 기획으로 J.S. Bach의 'b단조 미사'를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2011년부터 바흐칸타타시리즈(Bach Canata Series)를 시작, 국내 고음악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일가르델리노(Il Gardellino)의 료 테라카도(Ryo Terakado), 바흐 칸타타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시히스발트 카위켄(Sigiswald Kuijken)을 초청하여 바흐칸타타를 연주하였고, 2014년 3월 한국 시대악기연주자로서만 바흐의 '요한수난곡'을 연주하여 국내의 고음악팬들에게 많은 호응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다. 또한 바로크 시대의 보석과 같은 앙상블 작품들을 선보이는 'Fiori Musicali' 기획연주 시리즈로 바로크 음악 애호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음반으로는 2011년 D. Buxtehude의 고난당하신 주님의 지체 Membra Jesu nostri와 G. F. Handel의 콘체르토 그로소 Concerto Grosso, C. Monteverdi의 마드리갈 등의 프로그램으로 첫 레코딩을 시작하여 이후 '바오로의 딸'을 통해 바로크 종교음악을 담은 두 번째 음반을 발매하였다. 2014년부터 '오디오가이' 레이블과 함께 장기프로젝트로 '17세기 바소 오스티나토'를 발매하였고, 이번 음반이 두 번째 프로젝트이다.

"They portrayed each of text very expressively as hearting out or sometimes shouting with joy...!"

- Associated Newspapers, Korea -

"The comprehension and the quality of performances of Bachsolisten Seoul are every bit as good as that of high-priced equivalents in Europe."

- Choir & Organ, Korea -

In addition, all of ensemble members not only have been concentrating on their profound and aesthetic performances as the ideal baroque soloists and instrument players, but also they have been teaching at universities to train and nurture next-generation musicians. After 'Bachsolisten Seoul' was honored with third prize in the category of Ensemble Music' at the prestigious 'Yamanashi Early Music Festival' in Japan_2009, they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conductor Masaaki Suzuki 'H-moll Messe'_Joh. Seb. Bach_2011.

Since 2011 Bachsolisten Seoul has two main projects, Bach Cantata Series and Fiori Musicali Series which introduce meaningful baroque-repertoire except Bach.

Ever since the ensemble's formal inception in 2005, 'Bachsolisten Seoul' has persistently built the reputation with their prominent interpretations on baroque repertoire. Especially, a choice of the repertoire shows their effort and passion for baroque music; from madrigals, motets, operas, sonnets to passions composed by Monteverdi, and vocal works of J.S. Bach, Handel, Buxtehude, Caldara, Charpentier, Carissimi, and G. A. Rigatti.

Since 2005, they held performances continuously and genuinely at numerous concert halls, universities, and churches throughout both South-Korea and Japan as participating in a variety of renowned international music festivals in South Korea and Japan, such as the 'Seoul Early Music Festival', the 'Chunchen Early Music Festival', and the 'Tsuru Early Music Festival'.

음악감독: 박승희, 오케스트라리더: 최윤정

J. S. Bach의 작품을 중심으로 바로크 시대 전반기의 작품을 연주하는 앙상블로서 지난 2005년 창단된 바흐솔리스트서울은 주로 독일에서 고음악과 오라토리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시대연주와 학구적인 음악적 접근을 추구하는 고음악전문 연주단체이다.

창단 이후 2006년 바흐의 마태수난곡(발첼)과 칸타타연주를 시작으로 한국합창페스티벌, 서울국제 고음악페스티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기획연주, 객석문화, 서울오라토리오페스티벌, 금호아트홀 초청 음악회, 춘천고음악페스티벌,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 등의 음악제뿐 아니라 연세대, 성결대, 장신대, 강릉대, 충신대, 한국합창연구학회, 한국합창총연합회 등 관련학회 및 학계의 초청을 통한 학구적인 연주회를 비롯하여 편안한 해설음악회까지 다양한 팬들에게 바로크음악의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

CREDITS

Conductor / Music director : 박승희 Seung-hee Park
Soprano : 송승연 Seung-youn Song, 이수희 Su-hee Lee
Countertenor : 정민호 Min-ho Jeong
Tenor : 홍민섭 Min-sub Hong
Bariton : 박승혁 Seung-hyuk Park
Baroque Violine : 최윤정 Yun-jung Choi, 손경민 Kyung-min Son
Viola da Gamba : 강지연 Ji-youn Kang, 강효정 Hyo-jung Kang
Organ : 아렌트 호로스펠트 Arend Grosfeld

Producer : 백승록 Seung-Rok, 김보미 Back, Bo-mi Kim
Balance Engineer : 최정훈 Jung-Hoon Choi
Assistant Engineer : 박성범 Sungbum Park, 안혜람 Hehram Ahn
Recorded at OLYMPUS Hall
Mastered at Audioguy Studio, Seoul

Microphones: DPA 4011,4015,4018,4006, Neumann TLM170R
Microphone Preamplifier: Rens Heijnis Custom Build
Recording Format: DXD

Design UNIQUEPIECE

www.audioguyrecords.com AGCD0099 | JEC-0215



AUDIOGUY